

한은, 기준금리 1.75%로 인상... '가계빚 부담' 컸다

1500조로 불어난 가계부채 부담 등 금융안정에 중점 한·미 금리차 확대 가능성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 잠재성장률 수준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 유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30일 기준금리를 1년 만에 올렸다. 경기 침체 우려에도 '발등의 불'인 1500조원으로 불어난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시장 자산 물림에 대한 부담이 더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0.25%p 인상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6년5개월만에 첫 금리인상

이 단행된 이후 1년 만에 추가 인상이 이뤄지게 됐다. 이번 금리인상 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 험난했다. 저금리 장기화로 가계 빚은 어느덧 1500조원을 넘어섰고 불어난 자산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집값 급등 등 과열양상이 빚어지게 됐다.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 고조에 따른 불확실성,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고용 쇼크' 등 국내 경제지표 하향세

로 한은은 금리를 올릴수도 묶어둘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그사이 미국의 금리인상 가속화로 지난 3월 10년7개월만에 처음으로 역전된 한·미 금리차는 0.75%p까지 벌어졌고 다음달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으로 금리차가 1.00%p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한은은 올해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금통위에서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가계빚 문제도 급한데다 금리차 확대도 우려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 경기 성장세가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미리 금리를 올려뒀던 통화정책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도 읽힌다.

한은은 국내 경기여건이 금리인상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은은 금리인상 이후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에서 "국내 경제의 성장 흐름은 지난 10월 전망경로와 대체로 부합해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가 유지될 것"이라며 "투자는 둔화되었으나 소비는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시장에서도 이번에는 한은이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었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6~21일 채권시장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9명이 금리인상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동결을 내다보는 응답자

는 21명에 그쳤다.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내년 통화정책방향으로 쏠린다. 이번 금리인상도 경기둔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단행된 터라 한은이 추가로 금리를 올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자칫 무리한 금리인상이 가리웠던 실물경기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2.8%에 그치고 내년에는 2.6%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급격한 외국인 자금 이탈이 일어나지 않는 한 경제성장률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한은이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한전 전북본부, 사랑담은 김치로 지역 주민과 소통

한전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정은호, 전력노조 위원장 최홍철·장재춘)는 지난 30일 노사임원, 사회봉사단원 등 30여명은 지역주민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노사임원 및 사회봉사단원들의 참여로 이웃주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1,000kg(5백여만원)의 김치를 정성스럽게 담가 전주 시 독거노인쉼터복지지원센터, 온고을지역아동센터, 호국보훈가정 등 100여세대 대상, 500여포기의 김치를 온정의 손길로 전달했다. 정은호 한전전북지역본부장은 "온정 담긴 김치를 받고 환하게 미소 짓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훈훈해 진다"며, "지역 주민을 위한, 소외계층을 위한 보듬 경영을 끊임없이 이어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음성인식으로 간편하게 금융 상담하세요'

NH농협은행, 편리한 금융상담 위해 '시콜봇' 서비스 오픈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기존 문자로 입력했던 챗봇보다 음성인식으로 금융 상담이 가능한 '시콜봇' 서비스를 국내 은행권 최초로 오픈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시콜봇'은 작년 개발을 시작, AI시스템 노하우를 축적, 음성인식, 고객문의 답변 정확도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물이다. 또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20여명의 전담 인력을 구성, 모니터링, 튜닝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서비스는 모바일플랫폼 '올원뱅크 앱'에 접속하거나 1644-0000 이용 할 수 있고 '시콜봇' 상담도중, 전담 상담사와 상담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구현했다. 김장근 NH농협은행전북본부장은 "NH농협은행은 4차 산업 혁명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콜봇 서비스로 고객의 편의와 만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NH농협은행이 음성인식으로 금융 상담이 가능한 '시콜봇' 서비스를 오픈했다.



전북은행이 지난 30일 전북은행 본점 로비에서 전북은행과 함께 '전북현대모터스FC 팬 사인회'를 열었다.

전북은행과 함께 '전북현대모터스FC 팬 사인회'

이동국·이용·김민재 등 국가대표 선수 참여... 400여명의 팬들과 소통 시간 보내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30일 전북은행 본점 로비에서 전북은행과 함께 '전북현대모터스FC 팬 사인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은행이 2018 K리그 우승을 차지한 전북현대모터스FC와 파트너십을 강화, 문화행사 활성화, 팬서비스 차원에서

사인회를 열었고 400여명 팬들의 관심과 참여로 큰 성공을 이뤘다. 팬 사인회에는 전북현대모터스FC 라이온킹 이동국, 이용, 김민재 등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여하여 행사장을 찾은 팬들에게 일일이 사인을 하고 인사를 나누는 등 팬들과 즐거운 소통의 시간을 보냈다.

임용택 전북은행장은 "지역유행의 향토은행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매년 열리는 팬 사인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감사하다"며, "전북은행은 문화, 체육행사 등을 펼쳐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전북은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우체국 사랑의 연탄 나눔 "우리의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큰 힘"

전주우체국(국장 박찬례, 지부장 김용균) 집배원 365봉사단은 최근 사랑이 필요한 이웃을 방문 '사랑의 연탄

나눔봉사 활동을 벌였다. 사랑의연탄 나눔봉사에 함께 한 집배원365봉사단원, 연탄은행 등 30여명은 직접 연탄

을 나르며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온정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박찬례 전주우체국장은 "우리의 작



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이웃에게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전주우체국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제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